

교육부, 지역인재 요건·선발 비율 강화

# 지방 의·약대 40% 선발 의무화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 변경  
대학원 지역인재 입학 비율 20%  
유은혜 “지방대 입학 유인 필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신문DB

올해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수도권 소재 고교생들의 지방 소재 의대와 약대 입학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학의 지역인재 우선 선발 비율이 상향돼 의무화됐고, 지역인재 요건도 강화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9월 24일 시행되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인재 요건과 선발 비율 등을 구체화했다.

우선, 지방대학 의대·치대·한의대·약학대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은 40%(강원·제주는 20%), 지방대학 간호대학의 최소 입학 비율은 30%(강원·제주는 15%)로 규정했다. 지방 전문대

학원의 경우,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은 20%(강원 10%, 제주 5%),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최소 입학 비율을 15%(강원 10%, 제주 5%)로 정했다.

교육부는 그간 지방 의대·약대 입학생 중 30%를 지역인재로 의무선발하도록 권고해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이 높아지고 권고사항이 의무사항으로 바뀌게 됐다.

지역인재의 요건도 더 강화했다. 입

학부터 졸업까지 모두 지방 소재 중학교에서 이수해야 하고, 지원하려는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 입학해 졸업해야 해당 대학 지역인재로 지원할 수 있다. 지역인재 요건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학년부터 지방 의대·약대 등에 입학하려면 내년 중학교 입학부터 수도권 이외 지방 소재 중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결국, 지방 소재 학생들의 의·약대 등 입학 경쟁은 지금보다 낮아지는 반면, 수도권 소재 학생들의 입학 경쟁은 지금보다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가상설계 및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에 수상작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

## 건국대, ‘KU전공체험 온앤오프’ 발간

59개 학과 소개, 진로 정보 담아  
2023학년도 입시 내용도 수록

건국대학교 입학처는 학생들이 대학에 있는 전체 학과를 한눈에 보며, 각 전공에 대한 학과 탐방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KU전공체험 온앤오프(ON & OFF·사진)’를 펴냈다고 13일 밝혔다.

‘KU전공체험 온앤오프’에는 건국대 내 12개 대학 59개 학과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 전공 교과목, 졸업 후 진로 정보가 담겼다. 각 학과 탐방 영상도 시청 가능하다.

특히 학과 관련 영상의 경우 오프라인 책자는 QR코드를 통해, 온라인판



은 클릭 한번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어 비대면 전공 체험이 가능하다. 온라인판은 입학처 홈페이지 내 링크에서 이용할 수

있다.

건국대 입학처는 2023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책 말미에 ▲2023학년도 전형 체크 포인트 ▲전형 제출 서류 안내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등 입시 준비생이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넣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 서울교육청, 직업계고 게임개발대회 본선 개최

코로나 고려 전 과정 비대면 운영  
우수 수상작, 앱 마켓 출시 지원



서울시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IT분야 진로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1 직업계고 IT분야 취업UP 게임개발대회 본선’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창업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개발대회는 서울시교육청이 게임인재단과 협업해 지난해 처음 기획했고, 올해 2회차를 맞았다.

이번 대회는 ▲IT 분야 직업계고 학생 역량 개발 ▲프로젝트 수행 과정을 통한 소통·협업 능력 제고를 목표로 추진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게임 개발

에 필요한 기초 지식·소양인 게임 기획, 저작권, 성공적인 게임 기획안 작성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지난 7월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0팀은 ‘한국게임개발자협회(KGDA)’ 소속 현직 게임 전문개발자 선배의 멘토링을 받으며 작품작을 완성했다.

본선 진출 10팀은 ▲헬렌(미래산업과학고) ▲로스트 인텔리전스(서울로

봇고) ▲스팀펍크림(미래산업과학고) ▲빅토리 어스(세명컴퓨터고) ▲캐치업(한세사이버보안고) ▲야부래(아현산업정보고) ▲푸른지구(성암국제무역고) ▲블루베리 스튜디오(서울디지털고) ▲밸런스패치(서울디지털고) ▲아낌없이주는나무(서울디지털고)다.

본선 대회는 이달 15일 서울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 무관중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다. 대표 학생이 각 팀의 창작 게임 완성작 최종 버전을 직접 시연·발표한다.

교육청은 최종 수상팀에게 서울시교육감 표창과 게임인재단의 장학금을 수여한다. 또 게임성이 우수한 수상작을 대상으로 앱 마켓 출시 등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

## 조수진 교수, 7대 대한두통학회장 연임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두통일기 제작 등 인식개선 앞장



있다. 조 교수는 대한두통학회장으로 두통 치료 및 두통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연구 및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조수진 교수(사진)가 9월 1일 제7대 대한두통학회장으로 연임됐다.

조수진 교수는 2019년 9월부터 2년간 제6대 대한두통학회장을 지냈으며, 이번에 다시 회장직을 맡았다.

2001년 창립된 대한두통학회는 두통분야의 유일한 학회로 편두통, 긴장형두통, 군발두통, 원발찌름두통 등 원발두통질환과 다른 원인에 의한 이차두통질환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또 환자의 두통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두통일기’ 책자 및 어플 개발과 ‘두통 없는 세상’ 홈페이지 제작 등 두통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국민대, 기후기술분류 AI 경진대회 ‘1등상’

국민대표팀 최종 1위 기록

국민대학교는 경영대학원 학생·동문들이 지난 10일 자연어 기반 기후기술분류 AI(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1등상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기후기술분류체계에 맞춰 자동으로 라벨링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대회다. 지난 6~8월 총상금 600만 원 규모로 진행됐으며, 국내외 대표적인 AI해커톤 플랫폼인 데이콘(DACON)이 주관하고 녹색기술센터(GTC)가 주최했다.

국민대 경영대학원 AI빅데이터전공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팀(팀명: 국민대표팀)은 기후기술분류체계에 따른 라벨링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LS TM, 패스트 텍스트 등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모델들을 다양하게 활용했다.

또 사전학습된 모델의 전이 학습으로 개별 모델의 성능을 높이고, 후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개별 모델의 앙상블을 통해 최종 알고리즘을 완성했다. 그 결과 국민대표팀은 리더보드에 기록된 833팀 중 코드 및 대회 규정 준수 여부 검증을 거쳐 최종 1위를 기록했다.

/김현정 기자

## 세종대 알고리즘 온라인 강의

세종대학교 대학일자리사업단은 ‘2021년 하반기 알고리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SW 역량 레벨 테스트 ▲C++ 기초 문법 ▲기초 자료구조 ▲재귀 알고리즘 ▲탐색 알고리즘 ▲중간점검 및 모의 테스트 ▲분할과 정복 기법 ▲동적 프로그램 ▲그래프 알고리즘 ▲알고리즘 성능향상 기법 ▲실전감각 기르기 등으로 구성됐다.

현직 개발자가 강사로 나서며, 오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온라인 비대면 라이브 강의로 진행된다. /김현정 기자

## 인하대 현장연수 참여 문화예술교육사 모집

29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온라인 강의

인하대학교는 ‘2021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길라잡이 연수’에 참여할 문화예술교육사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본 연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인하대 문화예술교육원이 주관한다.

연수 프로그램은 ▲문화예술교육사 커리어디자인하기 ▲문화예술교육 현장 들여다보기 ▲문화예술교육 전문 예술강사로 성장하기 ▲문화예술교육 기획자로 거듭나기 ▲문화예술교육 행

정 토크보기 총 5개로 구성됐다. 미술관, 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 등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가 강사진으로 나선다.

연수는 이달 29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비대면(온라인) 실시간 강의로 진행된다. 1~3년차 2급 문화예술교육사만 참여할 수 있다. 개강 3주 전부터 14일간 아르떼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으로 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